

한그루봉사단, 홍릉숲가꾸기

지난 5월 20일 토요일 대학생 자원봉사자 한그루봉사단은 홍릉숲 가꾸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숲의 역사를 간직한 홍릉수목원은 1922년 서울 홍릉에 임업시험장이 설립되면서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제 1세대 수목원입니다. 산림과학관을 비롯해서 각종 수종별로 전시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날은 평소 사무국에서 푸른숲선도원의 활동을 위해 봉사해주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홍릉숲을 가꾸면서 숲과 하나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숲가꾸기 활동을 마치며

동국대학교 산림자원학과 조민지

봉사,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실천하기에 많은 주저함을 나타낸다.

나도 처음에는 봉사활동을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었다. 집에서도 멀고 굳이 봉사활동을 학점 때문에 해야 하나 라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봉사활동 중에 학생들에게 산과 숲을 가르치고 또 그 학생들을 위해 일을 한다는 한그루 녹색회가 내 눈에 들어왔다. 산이 좋고 숲이 좋고 자연이 좋아서 공부하는 내 전공이지만 막상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꿈과 현실을 접목시키고자 '한그루 녹색회'의 문을 두드렸다. 서른 여 시간의 짧은 활동이었지만 푸른숲선도원의 명단을 작성하기도 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을 가르치기 위해 보시는 도서정리, 그리고 녹색회가 있는 국립산림과학원 내의 홍릉 수목원 청소 등을 했다.

어려운 일은 없었지만, 자연을 소중히 하고 또 청소년들에게 그 중요성과 아름다움을 알려 주려하시는 사무국 직원 분들을 보면서 내가 한 작은 봉사가 어쩌면 수 천명에 달하는 전국의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니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다.